제5의 전장…강대국도 약소국도 없다

사이버전의 모든 것

박동휘 지음

'코소보', '러시아-조지아', '러시아-우크라이나', '오차드 작전'….

위에 언급한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사이버전이다. 1990년대 말 발발한 코소보 전쟁은 사이버전의 서막을 알린 계기였다. 그리고 2008년 러시아와 조지아의 전쟁은 하이브리드 전쟁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사이버 상에서도 격전이 확대되고 있다. 3차대전까지는 아니어도 세계대전을 방불케 하는 다국적 사이버 전사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09년 국제전기통신연합 사무총장 하마둔 투레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제3차 세계대전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날 것이고, 그것은 재앙이 될 것이다… 핵심 네크워크가 파괴된 모든 국가는 곧바로 불능상태가 될 것이고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성역은 없다." 하마둔 투레의 경고는 2022년 현실화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이 바로 그것. 한마디로 향후 전쟁은 사이버전으로 시작해서 사이버전으로 끝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한눈에 보는 사이버전의 역사를 다룬 책이 발간됐다. 육군사관학교 군사학과 박동희 교수의 '사이버전의 모든 것'은 제5의 전장 사이버 공간을 다룬다. 저자는 워싱턴대 '사이버시큐리티 이니시에이티브' 팀 리서치 펠로우로 IT기업 사이버 보안 담당자들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다. 육군 사이버전연구센터 연구원으로 사이버전 사례 연구를 담당하기도 했다.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합동기지에 위치한 미 공군 624작전센터의 사이버 전사들의 모습. 〈플래닛미디어 제공〉

사이버전에서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컴퓨터를 장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세계의 초강대국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하마둔 투레의 말처럼 악성 코드를 통해 좀비 PC들로 대규모 사이버 군대를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벌어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정규군과 정보기관 소속 사이버 전사를 비롯해 IT 전문가가 참여했다. 여기에 일반 해커들까지 가세해 사이버 전장의 군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들은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컴퓨터 실력으로 무장한 채 싸우고 있다. 전쟁 초기 러시아 정부에 대한 사이버 전쟁을 선포하고 행킹을 강화하고 있는 국제 해커 단체 어나니머스가 대표적 사례다.

책은 사이버 강국으로 알려진 미국, 러시아, 이란, 북한,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에서 일어났던 사이버전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러시아의 사이버전을 소개한다. 이른바 '사이버 마키아벨리즘'으로 정의된 이 전쟁은 러시아-에스토니아 분쟁을 비롯해 지난 2016년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해킹 사건을 자세히 다뤘다.

저자는 사이버 중동전쟁도 다룬다. 일명 스턱스넷 공격은 지난 2010년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연합해 실시한 이란 비밀 핵실험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다. 악성 코드를 매개로 핵시설을 물리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중요한 공격이다.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사이버전도 흥미롭다. 중국의 전략은 '사이버 만리장성' 건설을 매개로 펼쳐진다. 즉 사이버 주권 강조는 물론 검열로 정권을 보호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편 저자는 개인의 사이버 안보 의식 함양은 물론 개인과 국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플래닛 미디어·2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메디치 가문의 사랑과 예술, 권력암투의 대서사

메디치 1·2·3

파트릭 페노 지음·홍은주 옮김

350년간 군림하며 4명의 교황과 2명의 프랑스 왕비를 배출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등 예술가를 후원, 르네상스 운동을 주도한 가문. 이탈리아 피렌체의 평범한 시민이었던 메디치는 어떻게 피렌체와 이탈리아를 넘어 세계사의 흐름을 바꿀만한 강력한 힘을 가진 가문이 되었을까.

역사 소설 '스핑크스의 지배' 등을 쓴 프랑스 작가 파트릭 페노의 장편 소설 '메디치'(전 3권)는 수백년간 배후에서 유럽을 뒤흔든 한 가문의 쇠락과 소멸, 영원히 남을 메디치의 유산을 다룬 흥미로운 작품으로 메디치 가문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쟁과 권력암투를 영화처럼 생생하게 풀어놓는다.

소설은 예술과 사랑, 야망과 배신을 담은 흥미진진한 드라마이자 르네상스의 역사를 담고 있는 예술서이면서, 근대 유럽의 생활사를 담은 교양서다. 메디치가를 두고 벌어지는 권력 암투 사이에 '모나리자' '천지창조' 등이 탄생되는 과정 등이 흥미롭게 다가온다.

모두 3권으로 이뤄진 책은 가문의 시조인 조반니 디 비치에서 시작해 르네상스의 초석을 다진 '위대한 로렌초', 열 일곱의 나이에 피렌체의 통치자가 돼 정적들을 냉혹하게 처단하며 토스카나 대공국의 대공 자리에 오른 코시모 1세, 토스카나의 마지막 군주 잔가스토네까지 이어지는 메디치 가문의 연대기를 다룬다.

1권 '왕관 없는 제후'는 메디치가를 유럽 금융 권력의 핵심에 올려놓은 '위대한 로렌초'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피렌체에서 왕에게도 돈을 빌려줄 정도로 막강한 금융자본을 지닌 메디치가의 후계자로 예술과 아름다운 연인 루크레치아를 사랑하는 청년인 그가 자신의 적대자를 하나 둘 처단하며 냉철한 제후가 되어가는 과정을 다룬다.

2권 '피에 물든 백합'에서는 권력은 누구와도 나눠 가질 수 없기에 피렌체를 두고 벌어지는 교황과 메디치가의 암투, 전란의 불길 속에서 피어나는 르네상스 이야기가 흥미롭게 펼쳐진다.

교황에 의해 아버지를 잃은 위대한 로렌초의 손자 코시모가 자신을 꼭두각시로 세우려던 피렌체 귀족 등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적들을 거침없이 제거하며 피렌체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과정을 다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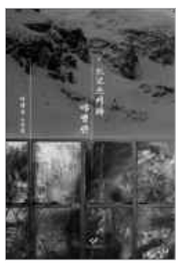
3권 '자비의 천사'는 메디치가의 장남 페르디난도와 결혼하면서 자신의 가문이 된 메디치 가문을 되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바이에른 왕녀 비올란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우린 이 도시에서 쫓겨날 거다. 하지만 우리가 세운 건축물들은 고스란히 남을 게요. 그것들은 영원히 우리 것이지." 책 속 대사처럼 지금, 피렌체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메디치 가문의 흔적을 고스란히 만나는 중이다.

〈문학동네·각권 1만6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풍수, 대한민국=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론'이 연일 화제다. 우석대 교수이자 풍수학자 김두규가 풍수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한다. '풍수,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조선왕조말, 이웃 일본과 중국, 그리고 조선이 멸망시킨 고려왕조의 풍수관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본다. 〈매일경제신문사·1만6000원〉

▲트로츠키와 야생란=2005년 문학수첩작가상을 받으며 작품활동을 시작, 빼어난 문학성과 정교한 서사로 이제는 하나의 스타일이자 장르라고 부를 수 있는 작가 이장욱이 네번째 소설집을 펴냈다. 삶과 죽음,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지우고 생의 근본에 대한 꾸준한 물음을 던져온 이장욱의 소설세계에 사랑과 농단 그리고 아름다운까지 한층 더해진 작품이다. 〈창비·1만5000원〉

▲당신은 영화를 믿지 않겠지만='작은 영화가 좋다', '영화, 그곳에 가고 싶다' 등을 펴낸 영화평론가 오동진의 신작. 어느 영화건 세상을 반영하지 않은 영화는 없다. 어느 장르를 불문하고 사회 상황과 문제를 간과한 영화는 찾아 보기 힘들 정도다. 이 책은 다양한 여성주의, 역사주의 영화들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의 여성주의 그리고 영화감독이 작품을 통해 역사적 필연성을 증명하는 모습을 안내한다. 〈썰물과밀물·1만6000원〉

▲인생이 내추럴해지는 방법=충주에서 프랑스인 남편과 와인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설가 신이현은 농사와 와인, 인생에서 '자연이 준 그대로의 삶'을 추구한다. 작가가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느낀 '자연 그대로의 삶'을 이야기 한다. 팍팍한 삶 속에서 유쾌하고 거침없는 그녀의 말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 내추럴한 인생을 살라는 작가의 응원을 들을 수 있다. 〈더숲·1만6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어떡하지? 걱정=미국에서 정신 건강 진료소를 운영하며 어린이의 발달과 성장, 자존감을 다룬 동화를 주로 쓰는 애덤 치치오의 마음똑똑 시리즈 61권. 걱정쟁이 주인공 '앤디'를 따라 책 장을 넘기다 보면 어린이들이 걱정으로 인해 느낄 수 있는 여러 감정들을 자연스레 배우고, 걱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에 대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 〈책과콩나무·1만3000원〉

▲오월의 주먹밥=2015년 평화인권문학상을 수상한 무안 출신 정란희 작가의 신작. 이 책은 5·18민중항쟁 현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광주 시민들의 이야기이자, 주먹밥을 만들고 나누며 시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원동력이 됐던 어머니들의 이야기. 초등학생 '경이'의 시선을 따라 1980년 5월을 느껴본다. 〈한울림어린이·1만5000원〉

▲근육 아저씨와 뚱보 아줌마·숲, 호수=자연과 동물 그리고 우리 일상 속 작고 소중한 것에 관해 그림으로 이야기하는 작가 조원희가 지난 2012년 처음 소개되어 강력한 매력을 보여준 '근육 아저씨와 뚱보 아줌마·숲'을 다듬어 재출간했다. 아울러 '근육 아저씨와 뚱보 아줌마·호수'도 내놓았다. 근육 아저씨와 뚱보 아줌마가 동물들을 도와주며 평온함 호흡으로 '공생'의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 〈사계절출판사·1만4500원〉